경계선 지능 청소년, 농부가 되어 자립을 꿈꾸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들이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요조힐링 텃밭에서 농업기술을 배우고 있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은 IQ 71~84에 해당하는 청소년들로 보통의 학교생활 적응이 쉽지 않아 대다수가 대안학교를 다닌다. 취업이 어렵고 진로가 불확실하기에 고등과정 졸업 후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소년도 많다. 법적으로 장애인은 아니다 보니, 정부의 복지 지원은 물론 사회적 관심조차 받기 어렵다.

Dream(꿈), Together(함께), System(시스템)의 약자에서 이름을 따온 사단법인 '디티에스행복들고나'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와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오며, 아이들의 어려움을 지켜봐왔다. 고심 끝에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트팜(Art+farm)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예술교육을 시행해 창의력과 독창성을 키워주고, 이렇게 개발된 능력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고 제품화하는데 활용한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들만의 스토리를 가진 '예술 농부'라는 직업군을 개발하겠다는 이 프로젝트는 2020년 아산재단 소외 아동 · 청소년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

좌절과 실패를 벗어던진 아이들, 가능성을 발견하다

아트팜 프로젝트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직업 활동에 필요한 기초교육과 농업 기초 이론을 학습하는 '직업기초 훈련', 땅과 친해질 수 있는 다양한 농업 체험활동으로 이뤄진 '농업기술 훈련', 상품 브랜드 디자인과 창의적 표현법을 배우는 '마켓디자인 훈련'이다. 여기에 경계선 지능 청소년들의 창의력과 자존감 향상을 위해 연극, 음악, 미술 등 예술 프로그램을 더하고, 학생들이 직접 키운 농작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아트팜 마켓 축제도 준비하였다.

디티에스행복들고나 김수완 사무국장은 "아트팜 프로젝트 1년차 사업은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농작물을 재배하고, 자기만의 상품 브랜드를 만들어 포장해 주변에 판매하는 것이 핵심이었다"고 설명했다.

추운 겨울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고구마 상품을 '춥구마'라고 이름 짓고, 이불을 덮은 고구마 캐릭터를 만든 권재원 학생은 최근 캐릭터 제작에 흥미가 생겨 디자인 쪽으로 더 공부해보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게 됐다. 어머니 홍경아 씨는 아트팜 프로젝트를 여느 체험 프로그램 수준으로 여겼지만, 최근에는 생각이 바뀌었다.

"아이가 졸업 후 사회생활이 가능할지 막연했지만 아트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재원이와 같은 친구들과 더불어 함께 일할 수 있지 않을까란 희망을 가지게 됐다"는 소감을 전했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 모두에게 가장 즐거웠던 순간은 '아트팜 마켓'

이 열린 날이었다. 아트팜 프로젝트 1년차를 마무리하며 그동안 개발된 아트팜 브랜드 상품과 재배한 농산물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시장을 연 것이다. 어머니 손에 이끌려 억지로 참가한 김동근 학생은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다. 아트팜 마켓이 열린 날, 동근 학생은 자기의 상품을 모두 판매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에게 구매한 농작물을 어머니 김향미 씨에게 선물로 잔뜩 안겨주었다.

"경계선 지능을 지닌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일반 학생들 사이에서 잦은 좌절이나 실패로 패배감을 겪어 왔어요. 새로운 분야나 경험에 선뜻 나서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죠. 아트팜 프로젝트에서는 자기와 비슷한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안정감을 느끼고 서로에게 시너지를 주고받는 것 같아요"라고 말한 김향미 씨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을지 더 지켜보고 싶다"고 전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미래를 그리다

아트팜 프로젝트 1년차 사업에 참여한 학생 대부분은 디티에스행복들고나의 대안학교를 다니거나 다녔던 이들이었다. 2021년 진행했던 2년차 사업에서는 지난 시즌의 아트팜 프로젝트를 보고 직접 참여를 신청한 신규 학생들이 늘었다. 고등학교 때 성적도 좋았고 대학에도 진학했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신이 사회성이 부족한 경계선 지능임을 알게 됐다는 박현민 학생은 인터넷에서 아트팜 프로젝트 홍보를 보고 직접 참여를 신청했다.

"경계선 지능 검사에서 언어나 수학적 지능은 높은 데 반해 사회성이나 의사소통, 동작에 관련한 지수가 낮아서 편차가 컸어요. 부모님도 제가 경계선 지능인 것을 모르셨다가 깜짝 놀라셨죠. 농업은 전혀 접해본 적이 없지만, 열심히 배우고 싶다는 생각으로 신청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는 것도 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김수완 사무국장은 아트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수확물'보다 농사짓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자립 가능성을 엿보았다고 말했다.

"농사짓는 과정은 경계선 지능 청소년들이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알게 해주고, 노력해도 안 되던 습관이나 버릇을 고치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농업과 예술에서 경계선 지능인의 결핍된 부분을 보완하고 자립의 싹도 틔울 수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튼튼한 버팀목을 꿈꾸다

2022년부터 디티에스행복들고나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들을 실질적인 예술 농부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더욱 심화된 직업역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아이템 선정, 농작물 재배, 가공, 판매 등 단계별 훈련 과정을 더욱 세밀하게 구성했으며, 청소년들이 다른 기업의 인턴으로 활동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준비했다.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도록 사회성 향상 훈련, 시간관리 교육, 대인관계 형성 훈련 등의 기본 소양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디티에스행복들고나는 궁극적으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아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갈 계획이다.

부진아, 부적응자, 무능력자와 같은 사회적 낙인을 받으며 위축되기만 했던 경계선 지능 청소년들은 예술 농부라는 새로운 직업을 통해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다. 이렇게 얻은 자신감을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들만의 스토리를 녹여낸 농작물 브랜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며 온전한 자립을 이루어나갈 계획이다. 글 **곽한나**

2021년 여름 서울 노원구 예룸예술학교 앞마당에서 농산물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아트팜 마켓에 참여한 청소년들.